

진여가 움직이면 ‘阿黎耶識’ 이 된다

(아려야식)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생멸인데 이 생멸이 진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여래장(如來藏)에 의하여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흔히 비유를 드는 바와 같이 물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여래장이란 여래의 태(胎)라는 뜻으로 모태와 태아 모두를 말한다. 이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여래장이 진여의 본체인데 여기서 생멸이 생긴다. 고요한 수면이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는 상태로 달라져 동정(動靜) 차별이 있게 된다. 물과 파도가 고요하고 움직이는 상태는 다르지만 물과 파도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를 기신론에서는 비일비이(非一非異)라 하여 '아려야식'을 정의내리는 말로 쓰고 있다. 아려야는 아뢰야(阿賴耶) 혹은 아리아(阿梨耶)로 음사 되는데 범어 'alaya'가 어원이다. 의

역(意譯)을 할 때 기신론 번역자 진제(眞諦)는 무물식(無物識)으로, 현장(玄)은 장식(藏識)으로 번역했다. 이는 'alaya'의 첫 음인 'a'를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뜻이 각각 달라지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a'가 장음으로 읽힐 때는 '집, 주처, 창고'라는 뜻이 되고, 단음으로 읽힐 때는 '없어지지 않는, 다하지 않는'이란 뜻이 된다.

물·파도 상태 다르면서 같아

이것이 非一非異 '아려야식'

법계가 전일적인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무물식이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여 번역한 것이 장식이란 저장하는 식이란 뜻이다. '장(藏)'에는 포함과 출생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아뢰야식이 일체 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라 하며 동시에 일체 법이 아뢰야

식에서 나오므로 장식이 되는 것이다. 기신론 본문의 아려야식 설명은 이렇다.

“이 식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법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법을 생기게 한다. 두 가지 뜻은 하나는 '깨달음(覺)의 뜻'이고 또 하나는 '깨달지 못한(不覺)의 뜻'이다. 깨달음의 뜻이란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린 것을 말한다. 망념을 여린 모습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이 모든 존재의 세계 곧 법계가 그대로 전일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여래의 평등법신이니 이를 두고 본각(本覺)이라 한다.”

각이란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각이며, 생멸하는 망념이 불각이다. 이를 거울에 비유하여 말하면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고 깨끗하여 물체를 비춰주는 것은 각이요, 먼지가 끼어 어두워져 물체를 밝게 비춰주지 못하는 것이 불각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하면 하늘이 본래 청명한 것은 각이요, 구름이 끼어 흐린 것은 불각인 것이다. 그러나 각이 불각인 상태로 되어도 진여 자체는 청정하여 한결같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본래의 깨달음이란 뜻으로 본각(本覺)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에 비록 그릇된 생각, 망념이 일어나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곧

진여의 본모습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또 마음의 본체인 각이 허공계와 같아서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고(無所不) 차별적인 현상이 야기되지 않는 평등한 하나의 모습이다.(法界一相) 이것이 바로 여래의 말법으로 법신(法身)이라 한다.

본각과 상대되는 말이 시각(始覺)이다. 시각이란 수행해서 얻는 깨달음으로 본각을 회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노력이다. 본각과 시각도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광석 속에 들어있는 금의 성분을 본각이라 한다면 시각은 용광로에 광석을 녹여 순금을 추출해 내는 제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 시각이다. 금의 성분을 놓고 말할 때는 광석 속의 금이나 순금으로 제련된 금이나 둘 다 똑같은 것이다. 다만 본각이 시각으로 드러나지 않게 방해하는 요소가 불각이다. 본래 있는 진여의 본체가 본각이지만 이것을 수행의 공을 들어 계발할 때에는 시각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각은 후천적인 수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본래의 각이므로 경함이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기신론을 영역한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은 본각을 '선험적(先驗的)인 각(enlightenment of a priori)'으로 시각을 '경험적(經驗的)인 각(enlightenment of a posteriori)'으로 번역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하사와 할머니

군복무 시절 나의 계급은 하사였다. 장기하사가 아닌 단기하사였다.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제1하사관 학교에서 28주간 훈련과 교육을 마치면 하사계급장을 달게 된다.

이기가 부대의 수색중대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 사단장의 지시로 사단의 법당인 사창리의 대성사에서 일요일 회를 맡는 군법사 대행을 했다. 그때부터 군복이 아닌 승복으로 스포츠머리가 아닌 삭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옷차림이나 삭발 등은 자유였으나 하사 계급장을 달고 사단의 보충교육대에서 신참 소위 등을 모아 놓고 종교 강연하는 게 약간의 부담스러웠고 군복보다 승복이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군법당 대성사는 원래 할머니 한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짙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사단사령부에서 기와집으로 법당과 종각을 짓고 첫 군법사로

것이였다. 예를 들자면, 먹이가 될 만한 영관 장교를 만나면 '5대조 할아버지가 출셋길을 막고 있구먼! 거나하게 제사 한번 차려주면 진급은 물론 가족 건강도 좋고 앞길도 술술 풀릴 터인데.'

말끝을 흐리는 창건주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대는 언기도 잊지 않는다. 이쯤 되면 진급에 목말라 있는 당사자들은 순간 이성을 잃고 창건주 할머니한테 매달리며 거나하게 차리는 제사상 흥정을 벌이게 된다.

나는 겨우 할아버지 이름까지만 기억한다. 그런데 5대조 할아버지를 끌어들이며 앞길을 막고 있구나, 5대조 할아버지라면 산소위지도 성함도 왜 주게 됐지도 아무도 모를 터. 무당은 아이큐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더니, 대개는 할머니의 끌끌 혀 차는 소리에 기가 죽고 5대조 할아버지 타령으로 큰돈을 부담하며 흥정을 마무리 짓게 되어있다.

육군하사 이용주는 '참기름 바른

제사만 지내고 요구하는 것은 '巫堂' 바른 불교는 바른 신앙을 자라게 해

육군하사 이용주를 발령하게 된 것이 다. 이용주는 호적에 담긴 향봉 스님의 분명이다. 그런데 그 대성사에는 창건주 할머니 한분이 주지처럼 조실처럼 위세를 부리며 군중병 스님들의 시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찰경계를 쥐고 군법사 역할을 담당하는 육군하사 이용주를 위락파악하고 싶었던 것이다. 군법당 대성사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것은 뻔한 일이요 정해진 이치이다. 무당불교 쪽이 창건주 할머니의 체질이라면, 경전 중심이 육군하사 이용주의 고집이었으니까, 지인이라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용주의 경전 고집이 할머니의 무당체질을 이기고야만 한다.

하여 시어머니격인 창건주 할머니가 며느리격인 육군하사 이용주의 눈치를 살필 지경에 이르고 만다. 주객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 일요일 범회의 호응도가 점점 배가되었고, 사병 중심에서 위관장교, 영관장교 부부동반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창건주 할머니에겐 끊임 없이 무당 귀신이 따라다니는지 영관장교를 만나면 5대조 귀신타령을 내 눈치 살피며 요령껏 팔자로 풀어대는

입'으로 부처님 경전중심으로 등불을 삼는 편이면, 창건주 할머니는 '양심에 털 난 허풍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뒤편 혀의 노동'으로 남의 재산을 뺏어오는 사기극을 즐겼던 셈이다. 배고픈 5대조 할아버지에게 차리는 제사상이 거나해 질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끝내, 귀신이 되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胃)도 엉덩아 커져거나 수심 개가 생기는 것인데 과일에 딱에 부침개에 거기가 배고픈 5대조 할아버지는 용돈도 필요한 것인지 현할 뜯 봉투까지 놓이게 된다.

자. 이쯤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되짚어 살펴보자. 무니와 무개만 다를 뿐이지, 창건주 할머니와 같은 옛비슷한 행위가 부처님 도량에서 전통사찰에서 법당에서 크고 작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한 반성과 자기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터이다.

바른 불교는 바른 신앙을 자라게 한다. 바른 신앙은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네 생활공간으로 되돌아온다. 사찰 경계를 앞세우며 흔들리는 모습. 이제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뚝 서야 한다. 밝은 불교의 내일을 위해.

보시마저 無心해야 '보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 보살의 보시란

菩薩行施時 大地皆震動 (보살행시시 대지개진동) 巨海涌寶 慧雲兩妙花 (거해용중보 혜운우묘화) 無心猶如是 況有情識者 (무심유여시 황유정식자) 菩薩施廣大 猶如虛空界 (보살시광대 유여허공계) 假使五通仙 充滿十方并 (가사오통선 충만시방창) 聽聞猶難 況復分別說 (청문유상난 황부분별설) 無有地方所 而不以求施 (무유지방소 이불이구시) 淨水浸大地 無有不遍處 (정수침대지 무유불변처)

번역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다 진동하며, 큰 바다는 못 보물들을 융출하며, 지혜의 구름에서 오묘한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말한다. 보살의 보시는 광대하기가 오히려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야 하며, 중생이라는 의식에 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풀 수는 없을지라도 깨끗한 물이 대지를 적시듯 보시하면, 두루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보시는 발보리심과 맞닿아 있다. 발보리심이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려는 서원이다. 또한 실천행으로 보살행이 시발점이며, 보살행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으로 건너는 여섯 가지 보살의 실천행이라는 말이다. 그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 되는 실천행이 바로 보시다. 보시란 '나'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

할 곳도 없습니다.

해설

제마보살은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다 진동하며, 큰 바다는 못 보물들을 융출하며, 지혜의 구름에서 오묘한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말한다. 보살의 보시는 광대하기가 오히려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야 하며, 중생이라는 의식에 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풀 수는 없을지라도 깨끗한 물이 대지를 적시듯 보시하면, 두루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보시는 발보리심과 맞닿아 있다. 발보리심이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려는 서원이다. 또한 실천행으로 보살행이 시발점이며, 보살행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으로 건너는 여섯 가지 보살의 실천행이라는 말이다. 그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 되는 실천행이 바로 보시다. 보시란 '나'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

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삶이다. 현실에서 더불어 극락의 삶을 추구하는 부처님의 실천적 행위이다. 그리고 보문경·율·논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중생들로 하여금 발보리심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 있다. 만속장경에 수록된 지각연수 선사가 쓴 <보살수계법명서(受菩薩戒法名序)>에서도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보살계를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제마보살은 이 계승에서 보시를 중심으로 한 발보리심이야말로 <영락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대장부의 무진계행(大丈夫法無盡戒行)'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보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리행경>에 이르기를, '중생에게 가장 수승한 보배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길까, 가지가지로 남을 위한 마음을 내어 자신의 이익만 바라지 않는 데 있다네. 기쁨을 세상에 써 뿌리고 수행 정진하여 세상의 악이 된다면, 마음이 보배로워지고 더불어 복이 있게 되리니,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리오.'라고 하였다.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인모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지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계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안성시 영평사 중앙불교대학원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학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특강 | 흥고(새벽에 치는 큰 북)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 연락처 : 회장(관희) 010-8290-6623
강주(문곡) 010-3727-0870
총무(진호) 010-5306-0856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서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